

4대강 수질 “대체로 개선”

환경부, 낙동강 하류는 악화 … 주암호는 양호

2001년 전국 4대강 주요 상수원의 평균 수질이 낙동강 하류를 제외하고는 2000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주요지점 수질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의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는 2001년 11월까지의 평균 수질(BOD)이 상수원수 1급수(기준 1.0mg/L 이하)에 가까운 1.3mg/L로 1996년 이후 가장 양호한 상태를 나타냈다.

반면, 부산·경남지역의 주 상수원인 낙동강 하류 물금지점은 2000년에 비해 수질오염도가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1년 11월까지의 평균 수질(BOD)이 상수원수 II급수(기준 3.0mg/L 이하)에 해당하는 2.9mg/L로 2000년 평균수질 2.7mg/L에 비해 오염도가 0.2mg/L 증가했다.

금강수계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는 2001년 11월까지의 평균 수질(BOD)이 2000년 평균수질과 동일한 1.0mg/L로 2000년에 이어 계속 상수원수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호의 수질오염도

(단위: BOD, mg/L)

월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95	1.1	1.4	1.4	1.2	1.3	1.5	1.5	1.6	1.2	1.2	1.2		1.3
1996	1.1	1.2	1.2	1.4	1.5	1.4	1.4	1.6	1.6	1.3	1.4		1.4
1997	1.4	1.4	1.6	1.9	2.1	1.7	1.4	1.4	1.4	1.2	1.3		1.5
1998	1.3	1.6	2.0	2.0	1.8	1.6	1.5	1.3	1.3	1.5	1.1		1.5
1999	1.4	1.4	1.4	1.9	1.9	1.7	1.7	1.3	1.6	1.5	1.3		1.6
2000	1.1	1.1	1.2	1.6	1.9	1.5	1.8	1.8	1.2	1.3	1.3		1.4
2001	0.9	1.0	0.9	1.3	1.8	1.6	1.3	1.3	1.5	1.5	1.4		1.3

광주·전남지역 최대 식수원인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주암호는 2000년에 비해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1년 11월까지의 평균 수질(BOD)이 0.7mg/L로 2000년 평균수질 0.8mg/L에 비해 0.1mg/L 개선됐으며 1998년 이후 계속 상수원수 1급수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4대강의 주요 상수원 수질이 최근 수년간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은 4대강 수계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꾸준히 확충해왔고 특히, 팔당호 등 한강수계는 1998년 12월 수립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및 1999년 2월 제정한 「한강 특별법」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오염도

(단위: BOD, mg/L)

구분 지점			2001.10 월	11월		평균(1- 11월)	
				2001년	2000년	2001년	2000년
영산강	담양	양치	0.6	0.6	1.3	0.8	1.4
	우치	치주	1.4	1.3	1.7	2.8	3.2
	광주	주안	3.1	2.6	4.0	4.4	4.6
	나주	무안	4.5	4.3	6.1	6.3	6.7
	무안	안암	1.7	1.4	1.2	1.9	1.8
섬진강	주암		0.5	0.5	0.7	0.7	0.8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호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4mg/L로서 2001년 10월에 비해 0.1mg/L 개선되었으며, 2000년 11월에 비해서는 오염도가 0.1mg/L 증가했다. 오염도가 증가한 것은 팔당댐의 방류량이 크게 감소(813.4→359.7 mm)해 하천 유지수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섬진강 수계의 주암 지점은 2000년 11월에 비해 수질이 0.2mg/L정도 개선돼 I급수의 양호한 수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1/ 04 >